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각 공동체별로 모이시면 됩니다.
- 다음 주는 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학교 전체교사 모임이 오후 4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꾸러기학교 여름여행이 7월8일(화)부터 10일(목)까지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종강여행이 7월8일(화)부터 10일(금)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희 권사 (감사)
 정연갑 · 이윤순 집사 가정 (감사)
 김영화 권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7 호
 2025년 7월 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랑, 그것이 전부입니다.

10대들과의 소통을 위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재들을 접해보는데 얼마 전 좀비에 관련된 영화를 우연히 알게 돼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웜 바디스] 라는 이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바이러스로 인한 좀비 아포칼립스 이후, 기억을 잃은 남자 주인공 좀비 'R'과 생존자 여주인공 '줄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R은 약을 구하기 위해 게이트 밖으로 나온 생존자 그룹을 습격하던 중 여자 주인공 '줄리'를 만나고, 그녀에게 첫 눈에 반합니다. R은 줄리를 다른 좀비들로부터 보호하며 자신의 은신처인 비행기로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집니다.

줄리와 R의 교류를 통해 R은 점점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이는 다른 좀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 또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R과 줄리의 사랑은 좀비와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두 종족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좀비였던 R은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며, 세상은 다시 희망을 찾게 됩니다.

영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꼽자면 좀비들이 두 주인공이 위기의 상황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공격하려는 것을 멈추고 길을 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손잡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멈춰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장면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며 이 사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 그것이 죽은 시체의 심장도 뛰게 할 수 있다는 것,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모두 순교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많은 고문 끝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신도들에게 전한 말은 바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그것이 전부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우리에게 달기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인류에게 허락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과 줄리의 사랑이 좀비들을 변화시켰듯이 그들의 맞잡은 손이 좀비와 인간의 삶을 갈라놓은 벽을 허물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많은 벽들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요4:20)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찢립니다.

혹,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을 확인받고, 보고 싶습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
<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10, 401 / 383

기도 :

성경 : 민수기 12장

제목 :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다

1. 내용: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징벌을 받다.(What)

<문단구분>

1~3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

4~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다

10~16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다

2. 의미: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Why)

- 1) 직분은 서로 다른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정리하셨다.
- 3)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3. 적용: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인정하자 (How)

- 1)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하나 됨을 위해 힘을 모으자
- 2)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 3) 자기 직분의 한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자

포천시 예술제 풍물공연 후기

처음으로 사물놀이 풍물 공연에 참여해 장구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엔 많이 긴장했지만, 막상 공연이 시작되자 원래 10분짜리인 장단이 이렇게나 짧아 싶어 할 정도로 몰입했고 긴장해서 그런지, 항상 아팠던 팔도 전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익숙한 장단을 치면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느끼고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멋쟁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고, 관객들의 큰 박수에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무사히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더욱 뜻깊고 잊을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화진심

좋은 기회가 생겨 2025년 포천시 늘푸른 예술제에 참가했다. 솔직히 참가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다. 그래도 살면서 몇 없는 기회일 것 같아 참가했는데 그러길 잘했다.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긴장되어서 배도 아프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보니 생각보다 긴장은 안됐다. 멋쟁이들도 연습 때는 하던 실수를 실전에서 하는 하지 않았고 그간 했던 것들 중 베스트였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 임채경

외부 풍물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멋쟁이 풍물 심화와 입문 하는 친구들 몇 명이 섞여서 공연을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서 내는 악기 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모두 본 무대에서 잘 하고 싶다는 욕심에 열정이 가득했다. 처음 멋쟁이들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함성 소리가 되게 컸던 게 기억에 남고 무대 하면서도 앞 관중들이 환호해줬던 게 인상 깊었다. - 최정원

이번에 멋쟁이가 포천시 예술제에 나가게 돼서 반월아트홀로 갔다. 먼저 점심밥을 먹었다. 컵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요구르트와 사탕을 같이 줘서 부러웠다. 마지막에 비경연으로 공연을 했다. 나는 하지 않았다.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부터 포스가 달랐고 너무너무 잘 맞고 맛있는 무대였다. 다들 긴장하지 않고 잘 공연을 마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나도 내년에 풍물 심화 반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내 마음속에서는 우리 멋쟁이가 1등이다. - 정아영

포천시 늘푸른 예술제에 비경연 부분으로 출전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촉박한 시간 안에 준비해서 조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대회를 끝내고 나서는 너무 만족스럽고 후련했다. 서로 배려하며 단합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 고여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115 : 11-13
35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2 : 2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11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누가복음 10 : 1-10,17-20 인도자
428 새짜사랑방
“ 손을 비우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14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정흠 이어람 / 봉헌위원 : 강춘자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손을 비우십시오

예수의 명령.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들르는 곳에서 평화를 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놀라운 결과. 제자들은 놀라운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사. 특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특사는 보낸 사람의 권위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손을 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빈 손 위에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손에 꼭 쥐는 것을 놓고 손을 비워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최연우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6월을 마무리하던 날 꾸러기들은 수건모자를 쓰고 몸에 솜을 좀 붙이고 양으로 변신해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를 따라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x○이는 x○이라서 좋다 ○r이는 ○r이라서 좋다 목자의 노래를 들으며 목자의 손길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늑대가 무서운 소리를 내며 다가와 양들을 넘보았지만 문이 되어 누웠던 목자의 지팡이에 쫓겨 멀리 도망가고 양들은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평소 강아지 놀이 고양이 놀이를 하던 꾸러기들이 양놀이를 즐겁게 했습니다. 센싱더스토리 활동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한 양놀이가 꾸러기들 마음에 사랑 가득한 따스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오래오래 남아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전에 다 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전시물을 보고 '늑대야 친구하자' 공연도 보았습니다. 클래식 음악 '피터와 늑대'를 기반으로 각색된 이야기였습니다. 늑대를 잡아 동물원으로 데려가는 결말을 알고 있던 꾸러기들은 다친 늑대를 구해주고 친구가 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길 것만 같던 장마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매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 공부해서인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어린이학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좋은 예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난주에도 선생님 한 분과 어린이 두 명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이면 생일카드를 전하고 달는 모임 시간에 축하노래와 축복기도 그리고 모두에게 축하인사를 받고 매년

달라지는 학교의 생일선물도 받습니다. 올 해 어린이학교에서 전달하는 생일선물은 "잠옷"입니다. 벌써 생일 선물을 받아 여행 때 입고 온 친구도 있답니다.^^

이제 7월이 되어 마지막 나들이와 면담으로 학기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도 다가옵니다.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동체학교가 남은 학기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공부와 생활을 함께 하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학기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며, 어떤 변화가 멋쟁이들 사이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학기말 면담"이 있었습니다. 멋쟁이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든 선생님과 마주하여 이번 학기의 자신이 어떠한지를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멋쟁이학교는 기말에 학교에서 흔히 있는 과목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의 생활을 겹쳐 살면서 보았던 학생의 삶을 관찰하고 성장을 도우려 합니다. 그것에는 담임인가 아닌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생활을 이어가며 우리 모두는 조금씩 서로의 영역에 발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학기를 정리해나가는 과정은 참 복되고 희망차게 합니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멋쟁이들은 토요일에 있는 종강발표회를 준비합니다. 학생회를 필두로 하여 온갖 것들을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때론 밤늦게까지 혼을 불태우곤 합니다. 그 결과를 어제 멋쟁이들은 여지없이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정성어린 식사를 준비해주셨던 부모님들의 얼굴을 웃게도, 감동받게도 하면서 피로를 씻어내려 주었습니다. 발표회를 마무리 지으며 함성과 함께 사진을 정신없이 찍는 멋쟁이들의 표정도 펍 흥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경주로 종강여행을 다녀옵니다. 아쉬움 없는 좋은 마무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감 사

올해 초, 환갑을 맞은 나는 뜻하지 않게 두 차례나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치료 과정일 줄 알았다. 그저 수술만 잘 마치면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목과 허리에 칼을 대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고, 그 이후의 회복 과정이 이렇게나 길고 고통스러울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통증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까지 움츠러들었다. 나약해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싶어 스스로가 부끄럽고 참담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육신의 연약함보다 그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마음의 짐이다. 늘 옆에서 챙기고 도와주는 가족들,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는 지인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위로에 더 기대려 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하나님보다 먼저 내 힘을 의지하고, 상황을 탓하며 믿음이 흔들렸던 그 나약한 내가 지금 너무나 부끄럽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분명한 것도 하나 있다. 그것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다시 일어나 보고 싶다. 이전과 같은 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더라도, 내 마음과 영혼만큼은 더욱 강건해지고 싶다.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영적인 재정비가 지금의 내게는 더 절실하다.

회복의 끝자락에서 나는 다짐한다.

작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나의 삶이 다시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이 고난을 통해 더욱 깊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해 본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중필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510, 390

성 경 : 디모데후서 2장 14-26절

말 씬 : 스스로 경건하게 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

유럽과 미주를 포함한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초여름 폭염으로 기후학자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최고 온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현실 앞에서 스스로 깊이 성찰하게 하옵소서.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을 위한 기도>

공동체 운동을 펼쳐나가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각 지역 임원들과 한공협 지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건강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과 활동이 불편한 지체들이 무더위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 전 아침 이른 시간에 밭일은 시작됩니다. 주 중에는 십자가 동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멋쟁이학생들과 함께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제초기를 돌려 잡초를 제거하고 있음에도 마당과 밭에 있는 잡초들의 성장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감사했지만 폭염과 가뭄에 고생하실 농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방의 모든 식구들이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영미 전도사 >